

보도시점 : 2025. 12. 19.(금) 06:00 이후(12. 19.(금) 석간) / 배포 : 2025. 12. 18.(목)

TK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마련

- 12월 19일자로 약 2.7조원 규모의 여객·물류 중심 복합기능 공항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항) 기본계획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시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3,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3,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 의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2조 6,996억원이다.

○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하였다.

* 3,500m 중 2,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민항 건설사업에서 연장부분 건설

② **(안전한 공항)**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259m)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or System)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2본)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민·군 통합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시 조류 퇴치·예방 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③ **(편리한 접근교통)**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구미군위고속도로(북구미IC(경부)~군위 JC(중앙)) 신설 등은 철도 및 도로의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 중

- ④ **(친환경 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속가능한 녹색공항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통한 단계적 공사장비 투입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 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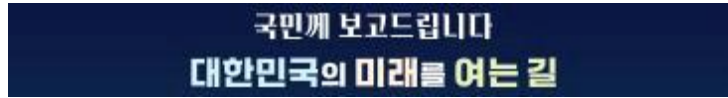
- ⑤ **(민·군 통합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함께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시공으로 추진한다.

※ (기타)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은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26년 상반기)

- 국토교통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 “통합이전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결정과 계획(안) 수립을 진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개항까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공항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힘을 모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	책임자	서기관	권성근	(044-201-5215)
		담당자	사무관	곽희종	(044-201-5212)
			사무관	김진우	(044-201-5217)
			주무관	김성민	(044-201-5216)



참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계획 개요

□ 공항개발예정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원 1,337천m²

□ 공항의 규모 및 배치

구 분		시설규모	비고
활주로*		3,500m × 46m, 1본	2,744m → 3,500m 연장부분을 민항에서 건설
유도로*		평행유도로 1본, 고속탈출유도로 6본	-
계류장		455천m ²	여객, 화물, 제·방빙 계류장 등
여객터미널	계	124천m ²	12,650천인/년('60)
	국내	20천m ²	3,023천인/년('60)
	국제	104천m ²	9,627천인/년('60)
화물터미널		10천m ² (군위군) 10천m ² (의성군)	군위, 의성 2개 터미널 조성
운영지원 및 교통시설		265천m ²	유지관리시설, 소방대, 동력동, 커브사이드, 주차장 등
진입도로		연장 동측 6.3km, 북측 5.2km	동측 4차로, 북측 2차로
항행안전시설		CAT-II	-

* 활주로·유도로는 군공항 부지(국방부 소유)에 민항에서 상부공사를 진행



□ 항공수요 전망(목표연도 '60년 기준)

- (항공수요) 여객 1,265만명(국내선 302만명, 국제선 963만명), 화물 23만톤
- (지상교통수요) 1일 차량발생량 34,604대 / 1일 철도이용객 20,868명

□ 건설 및 운영계획

- (건설) 공항 부지조성, 활주로 · 유도로 · 계류장 · 항행안전시설 등 Airside 시설은 국토교통부가 건설을 시행
 - 여객 · 화물 터미널, 전면시설, 주차장 등 Landside 시설의 사업 시행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 (운영) 공항운영자* : 현 대구공항의 국내·국제선을 신공항으로 이관

* 항공사업법 제2조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 받은 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

